





# 통일연구소 뉴스레터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NEWSLETTER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서울대학교 문화관 (73동) 통일연구소  
Tel: 02) 880-4052-4 Fax: 02) 874-7305 Homepage: <http://tongil.snu.ac.kr> E-mail: [tongil@snu.ac.kr](mailto:tongil@snu.ac.kr)

##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최근변화와 유럽연합의 역할”

###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통일연구소는 지난 6월 1일(금)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 (Hanns Seidel Foundation)과 함께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북한의 최근 변화와 유럽연합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구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과 독일연방의회 국회의원을 지낸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장관이 구 동독에서의 인권과 반체제운동 및 독일의 통일과정과 북한에 대해 기초연설을 하였다. 또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노베르트 바스(Norbert Baas) 주한 독일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브라이언 맥도날드(Brian McDonald) 대사는 2/13 합의이후 EU의 대북관계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면서 동아시아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차원의 통합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베른하르트 켈리거(Bernhard Seliger) 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스자이델 재단이 북한에서 벌인 개발지원의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켈리거 박사는

특히 북한의 수용능력(capacity) 개발에 대해 논의하면서, 북한의 공식부문 경제가 붕괴되고 시장부문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한편 스타니스라 루싸(Stanislas Roussin) 씨릭 꼬레(SERIC Coree) 대표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대학(Erasmus University)의 세자 두크레(Cesar Ducruet) 교수는 북한내 유럽국가들의 전략적 투자거점인 남포-평양 지구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이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가장 커다란 장애요소로 교통과 물류수송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북한 지역의 시장규모와, 산업특화, 접근성 및 사회기반시설을 고려해 볼 때 남포지역이 북한에 투자하려는 유럽기업들에게 최적의 위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베를린 자유대학의 박성조 교수는 북한내 유럽 NGO들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다른 NGO에 비해 유럽의 NGO들이 북한내에서 상대적인 이점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는 장달중 서울대 교수, 김세원 EU 연구센터 운영위원장,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드워드 리드(Edward Reed) 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 한국대표, 자비네 부하르트(Sabine Burghardt)는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프로젝트 담당자등이 참석하여 토론하였다. 마지막 종합토론시간에는 미국대사관의 리 맥타거(Lee MacTaggart), 중국대사관의 투 징창(Tu Jing Chang), 일본대사관의 아키히코 쓰나미(Akihiko Sunami), 러시아대사관의 드미트리 다르첸코프(Dmitry Darchenkov),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국제협력팀장 등 베이징 6자회담의 5개국 정부관리와 유럽 NGO 관리 및 외교관들이 참석하여 최근 북한의 변화와 북한내 유럽연합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2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북한에 대한 유럽연합의 활동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기조연설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전 동독 국방장관은 지난 6월 1일의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독일의 통일 당시 마지막 국방장관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이해와 지속적인 접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북한은 구동독과는 달리 강력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선군정치를 통한 군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반도 분위기는 독일의 1980년대 초반과 비견되는 상황이라며 남북이 진정 통일을 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면서 준비를 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 독일과 비슷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Round Table



이번 회의의 마지막을 장식한 종합토론시간에는 북한을 제외한 베이징 6자회담 5개국 정부관리와 EU의 NGO 인사들이 참여하여 최근 북한의 변화와 북한내 EU의 역할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선 2/13 합의의 이행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각 국 대표들은 최근 활발한 EU 국가들의 대북활동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EU의 경험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대북활동이 인도적 지원이나 자금지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교류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EU 국가들의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 통일연구소 주최 개성공단 방문 견학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본관 앞에서 전체방문자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김동근 위원장의 환영사

2007년 2월 21일(수) 통일연구소 주최로 교내 교수와 학생 45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김동근위원장으로부터 공단건설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들은 후 여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방문에는 현대아산 이강연 부회장을 비롯하여 교내의 송호근(대외협력본부장), 주종남(발전기금 상임이사), 박삼욱, 김정욱, 이

승훈, 전인영, 고철환 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방문자들은 개성공단의 전반적인 투자조건과 발전가능성, 공장 내 근로환경과 근로자 수급문제, 기술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 관리위원장의 말대로 개성(開城) 즉 성이 열렸으니 통일의 문도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견학이었다.

## 통일학 기초연구학술심포지움

### 2007년 1차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 심포지움 "통일연구의 사회통합적 접근"



지난 2월 9일 통일학 기초연구 학술심포지움이 "통일연구의 사회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심포지움에서는 과학기술과 환경 영역, 소비생활 및 유아·청소년 영역, 역사·문학 영역의 세 섹션으로 나뉘어 총 8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들이 다수 발표되어 토론자들뿐만 아니라 방청객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프로그램>

- 10:30~12:15 제1세션: 과학기술과 환경 영역  
발표: **손현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북한의 IT/BT 현황과 교류 방안 연구"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남북한의 환경정책 비교 및 통일후의 통합환경정책비전 개발"
- 13:45~15:45 제2세션: 소비생활 및 유아·청소년 영역  
발표: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소비생활 이질화 완화 및 소비자문제 예방을 위한 기초연구: 북한의 소비생활 분석을 중심으로"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북한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영양 및 급식관리 지원방안 모색"  
**박순영**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남한거주 탈북어린이 및 청소년의 신체성장, 신체발달, 그리고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 16:00~18:00 제3세션: 역사 및 문학 영역  
발표: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민단과 조총련관계 변화가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화해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김대행**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 2007년 2차 통일학 기초연구학술심포지움 "통일연구의 사회통합적 접근(II)"

#### <프로그램>

- 일시 : 2007년 4월 13일(금) 10:0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회의실 (문화관 2층)  
10:15~12:00 제1세션 : 정치 영역  
발표: **장승화** (서울대 법학과 교수), "남북한 분쟁해결절차의 통합방안"  
**이옥연**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동아시아 다층적 네트워크의 통일학: 다자주의 확산전략의 모색"  
토론: **정인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13:30~15:30 제2세션 : 언어 및 교육 영역  
발표: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 용어 표준화 방안 연구"  
**나일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통일대비 남북한 교육 정보화 격차 해소 방안 연구"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 "남북한 불경 현대 국어번역 용어의 비교연구"  
토론: **이승재**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신효숙**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 16:00~18:00 제3세션 : 새터민·노동 영역  
발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생계비 보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최명애**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질병 경험과 치료 추구행위 결정에 관한 연구"  
**이승중** (한국행정연구소 행정학과), "통일과정에서의 북한노동자 직업훈련정책에 관한 연구"  
토론: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지난 2월에 이어 통일학 기초연구 두 번째 학술심포지움이 “통일연구의 사회통합적 접근(II)”를 주제로 4월 13일(금) 10:00~18:00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움에 서는 정치·법제, 언어·교육, 복지·노동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7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명애(서울대 간호대)교수는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상태와 이들을 통해서 본 북한주민의 치료추구행위에 관한 연구」를 통해 213명의 새터민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새터민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새터민의 건강상태가 남한의 간염환자나 장기이식받은 환자보다 더 좋지 않은 상태라며

큰 우려를 표시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도 새터민 451명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생계보조금이 새터민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하였으며, 장승화(서울대 법학)교수는 남북한 분쟁해결절차에 대해, 이옥연(서울대 외교학)교수는 동아시아 다층적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권재일(서울대 언어학)교수, 나일주(서울대 교육학)교수, 조은수(서울대 철학)교수는 각각 남북한의 언어학 전문 용어 표준화 방안, 남북한 교육정보화 격차 해소, 남북한 불경 현대 국어변영 용어 비교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 제1기 통일아카데미 수강생 DMZ 방문

6월 20일, 통일아카데미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제1기 통일아카데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DMZ 방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남북분단의 상징적 현장인 DMZ(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분단의 현실을 확인하고 민

족화해와 통일한국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DMZ 공간을 통해 통일 문제를 생태 문제와도 연계하여 고민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참가인원은 제1기 통일아카데미 수강생 30명과 통일연구소 연구

진 및 스태프 10명이었으며, 철원방면 DMZ 지대의 고성정, 제2땅굴, 철의 삼각 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을 참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 북미관계의 지속과 변화 : 6자회담을 중심으로, 서울대 전인영 교수

2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전인영 교수를 모시고 “북미관계의 지속과 변화: 6자회담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차 통일정책포럼 강연을 개최하였다. 강연에서 전인영 교수는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의 의미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미관계 변화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인영 교수는 최근 2/13 합의이후의 낙관론을 경계하고 북미간에 이번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2월 말로 정년퇴임을 맞은 전인영 교수는 지난 30여년간



의 북한학과 국제정치학 연구에 대해 회고하며, 최근 북미관계의 변화 방향이 가

지는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13 합의의 의미와 남북한 관계 전망,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3월 21일(수) 오후 4시,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을 초청하여 “2/13합의의 의미와 남북한 관계 전망”을 주제로 제 5차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이봉조 원장은 베이징 2/13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특히 ‘말 대 말’의 단계에서 ‘행동 대 행동’의 구체적 이행단계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남북한관계와 6자회담의 상호 선순환구조가 구축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봉조 원장은 2.13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남북관계의 개선 또한 6자회담의 진전에 커다란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



전과 대화 협력의 기초 유지와 확대가 한반도 위기상황의 안정을 관리를 통해 필요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줄것이

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봉조 원장은 통일부차관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와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 2. 13 합의와 한반도 평화, 서울대 하영선 교수

5월 2일(수)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하영선 교수를 초청하여 제6차 통일정책포럼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하영선 교수는 2/13 합의가 북한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면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영선 교수는 2/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핵문제가 가지는 구조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 6자회담 참가국의 이해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하영선 교수는 핵문제에 대해 북한이 가지는 입장과 미국이 가지는 입장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은 기대와는 달리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결



국 2/13 합의에서 설정한 60일 이내에 초기단계의 조치가 이행되지 못하였고, 다음 단계의 합의이행도 앞으로 상당한 난관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미 간에 일정한 관계의 진전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며, 북한 지

도부의 전략적 결단이 없이는 핵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어려운데, 이는 북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07년 5월의 평양, 서울대 장달중 교수

6월 13일(수)에 본교 정치학과 장달중 교수를 초청하여 “2007년 5월의 평양: 장달중교수의 방북 리포트”라는 주제로 통일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장 교수는 지난 5월 9일부터 12일 기간 동안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동아시아미래재단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다. 이날 포럼에서 장 교수는 최근 북한 사회의 변화를 비롯하여 동아시아미래재단과 북측의 민화협이 공동주최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남북 간의 시각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북측에서는 북핵문제를 조미(朝美) 사이의 핵문제로, 남북평화협정을 조미평화협



정으로 접근하는 등 남북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론에서 장 교수는 남북 민간교류사업에서 북측 관계자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꺼려하는 논의 대

상은 ‘군 문제’이며, 반면 경제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 북한의 사회 계층과 의식 변화, 한영진(전 북한 국토환경보호부 부원)

3월 28일(수) 오후 2시, 연구소 세미나실에서 한영진(전 북한 국토환경보호부 부원, 현 NKdaily 기자)씨를 초청하여 “북한의 사회 계층과 의식 변화”를 주제로 새터민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북한의 사회계층 변화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함께, 식량난을 전후한 북한의 계층 구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었다. 한영진씨는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경제적 신분계층의 간극이 심화되었다고 보았으며, 식량난 이후 기존의 핵심계층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계층의 경우 자본주의 상품에 대해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 상실을 우려, 개혁개방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고 덧붙여 설명했다.

7.1조치 이후 계층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는 자산을 증식한 중간계층의 부상에 주목하면서, 장마당의 활성화와 함께 시장상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점차 상행위에 있어 전

문성을 갖게 되었으며 시장에서 안정적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이 향후 북한 체제변화가 진행되면서 기업가로 변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함흥시 전후 복구건설을 위한 동독의 역할

:The Rebuilding Team from East Germany in Hamhung, 신동삼

2007년 4월 25일(수) 오전 11시 통일연  
구소 세미나실에서 독일의 신동삼 선생을  
모시고 제10회 새터민포럼을 진행했다.

신동삼 선생은 독일의 바우 하우스  
(BAU HAUSE)에 소장된 동독의 함흥프  
로젝트와 관련한 건축설계도면, 사진 자  
료 등을 토대로 전후 북한 재건 과정에서  
의 동독 역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함흥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북한의 전후재  
건 사업으로 진행된 21개 프로젝트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신동삼 선생은 1930년 북한에서 출생  
하였으며, 동독이 6·25전쟁 이후 사회  
주의 체제의 발전 모델을 북한에 이식하  
고자 함흥을 선택하여 종합적 도시개발사  
업을 추진하였던, 이른바 ‘함흥프로젝트’  
시행기에 동독 함흥프로젝트팀에 소속되  
어 1956년부터 북한에 근무한 바 있다.



1959년 서독으로 이주한 후에는 1961년  
다름슈타트(Darmstadt)에서 건축학으  
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가 행정부서  
인 건설국에 재직한 바 있다. 1991년 은

퇴 후, 현재 독일 마인츠(Mainz) 부근에  
거주하고 있다.

### 런치 세미나

## “통계로 본 북한”

서울대 박성현 교수

2007년 5월 9일(수) 낮 12시 통일학세미나

5월 9일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박성현 교수를 초  
청하여 「통계로 본 북한」이라는 주제로  
통일학세미나를 개최했다. 통계는 북한  
연구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터라 세미  
나에 교내의 다양한 학분 분야에 종사  
하고 있는 많은 교수들이 참석했다. 이

미 지난해에 정년퇴임을 하신 권태환  
(사회학) 교수를 비롯하여 장경섭(사회  
학)교수, 박경숙(사회학)교수, 하용출  
(외교학) 교수, 정용욱(국사학) 교수 등  
교내의 대학원생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세미나에서 박성현 교수는 남북한 주

요 지표들(인구, 경제성장률, 주요 제품  
생산량, 사회간접자본 등)을 비교하여  
최근 남북 관계의 여러 영역에서 일어  
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고 전망했다.  
또 박 교수는 발표의 후반부에서 북한  
의 경제·산업 회복 전략으로서 7개의  
방안을 제시했고, 결론에서는 중국과  
같은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집단영농  
의 포기, 남북간의 교류 활성화, 외자유  
치를 위한 문호 개방, 민주주의 선거 등  
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발전이 가능하  
고 견해를 피력했다.

## 〈통일아카데미〉 제1기 성황리에 수료

본 연구소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하에 〈통일아카데미〉과정을 신설하여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통일·북한문제에 관심 있는 본교 대학(원)생(타교생 신청 가능)을 대상으로 한 통일아카데미는 4월 4일~5월 23일까지 총 8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되었으며, 강의 및 토론, 북한 영상물 시청, 현장학습 등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마지막 8강 이후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36명의 수강자 가운데 31명에게 수료증이 발급되었으며, 수료생 개개인의 통일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통일아카데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통일연구소에서는 앞으로도 1년에 두 차례, 1, 2학기 각기 한 번씩 통일아카데미 과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일자	횟수	주제	강사
4월4일	1강	(입학식) 21세기적 통일비전	김병로 교수 (통일연구소 전임연구교수)
4월11일	2강	2.13 합의: 미국은 정말 변하고 있나?	황지환 박사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4월18일	3강	집단체조로 본 북한의 문화: 집합적 열광인가 조직적 통제인가	정근식 교수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실장,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4월25일	4강	북한 주민, 그들의 꿈과 삶	강룡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 출신, 전 '한겨레학교' 교사) 초청강연
5월2일	5강	7.1 조처: 시장화인가 시장경제인가	정은미 박사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5월9일	6강	새터민의 탈북, 그리고 남한살이	박정란 박사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
5월16일	7강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의 준비	박태균 교수 (통일연구소 자료관리/출판실 실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5월23일	8강	통일, 민족, 평화 (수료식)	박명규 교수 (통일연구소 소장)



### 통일아카데미 새터민 초청강연

4월 25일(수) 저녁 7:00~9:00에 개최된 통일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는 새터민 강룡(북한 김형직사범대학 출신, 전 "한겨레학교-새터민대안학교" 교사)씨를 초청하여 "북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북한의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된 본 강연에서는 경제 위기로 인해 대학생, 그리고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학업 및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

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북한의 대학 입시와 주요 대학 소개가 이어졌는데, 북한의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대학 시험 절차 및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출신학교인 김형직사범대학을 비롯한 북한 주요 대학들의 규모, 학제, 조직, 학교 생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한 학생들은 크게 관심을 나타냈으며,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 Bernhard Seliger 박사 “북한경제와 개성공단”

2007년 2월 14일(수) 오후 2시-4시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Hanns Seidel Stiftung) 한국사무소 대표인 버나드 켈리거 박사를 초청하여 북한경제와 개성공단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켈리거 박사는 북한의 경제를 국가계획 시스템이 붕괴되고 물물교환 형태의 경제 체제를 거쳐 화폐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진단하고 체제변화 과정에서 화폐의 역할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정부는 중앙은행과 IMF, World Bank, ADB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Gerard Roland 교수 “북한과 체제이행론”

2007년 4월 17일(화) 12:00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의 Gerard Roland 경제학과 교수를 모시고 통일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사회주의 체제 이행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Roland 교수는 북한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체제 이행 전략 중 충격요법 혹은 빅뱅과 대비되는 점진주의의 이론의 북한에의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Roland 교수는 체제전환국의 정책수립 및 IMF, World Bank, 유럽연합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



## “2.13합의 이후 북한과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의 미래”

Robert A. Scalapino 교수

통일연구소는 5월 16일(수) 4시부터 통일연구소 세미나실 및 호암교수회관에서 로버트 스칼라피노 (Robert A. Scalapino) UC 버클리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2/13 합의이후 북한과 한반도 정세 및 한미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통일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오랜 관찰자인 스칼라피노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정보가 부족한 북한 연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최근의 상황변화에 대해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스칼라피노 교수는 1989년 첫 방북 이후 2006년 최근 방북까지 있었던 개인적 스토리를 통해 북한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흥미롭게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대해 중국, 러시아, 동유럽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



하며 폭넓은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치학과 장달중 교수, 외교학과 하용출 교수, 국민윤리교육과 전인영 교수,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 통일연구

소 박명규 소장, 김병로 교수, 정은미 박사, 황지환 박사 등과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하여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David Straub 교수

##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

4월 11일(수) 12시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통일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교수회관에서 오찬을 나누면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스트라우브 교수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6자회담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스트라우브 교수는 최근까지 부시행정부에서 근무하며 경험한 다양한 내부 사례들을 언급하며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부시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음을 지적했는데, 특히 네오콘의 영향력 속에서 미 행정부내에서 다



양하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스트라우브 교수는 주한 미대사관 정무공사 참사관을 역임하

였으며, 2002 ~ 04년 기간동안 국무부 한국과장을 역임하였다.

## 태국 외교부 외교관 방문

지난 5월 8일 오후 1시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 외교관 일행이 통일연구소를 방문하여 2시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와 한국-태국관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본 연구소 황지환 박사의 브리핑으로 시작된 이번 간담회에서 태국 정부 관리들은 2/13 합의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태국 관리들은 북한-태국 관계와 태국내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태국정부의 정책에 관해 설명하였다. 태국정부관리의 방문은 본 연구소 박태균 실장(국제대학원 교수)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방문에 태국 외교부 동아시아국의 Ittiporn Boonpracong (Deputy Director-General), Singtong Lapisatepun



(Director of Division 4), Dao Vibulpanich (Counsellor), Bhavivarn Noraphallop (First Secretary), Natthaphon Sapsinsoonthon(Second Secretary) 등이 참석하였다.

## 아시아재단 Edward Reed 한국대표 방문

Asia Foundation의 한국대표 Edward Reed가 4월 12일 14:00-16:00 본 연구소에 방문하였다. 통일연구소의 연구결과물과 연구방향에 대해 문의하였고 특히 대북지원 NGO의 활동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향후 두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려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 UN대학 Terusuke Terada 이사 방문

6월 14일(목) 15시~16시 일본 UN대학의 Terusuke Terada 이사(Foreign Press Center, Japan 회장) 일행이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테라다 이사는 UN대학의 세계적 활동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와 관련하여서는 UN 대학에서 주관하는 Global Seminar Series를 서울대 통일연구소와 공동으로 내년 2008년 상반기에 추진할 것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원서로 읽는 독일 통일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원서로 읽는 독일통일’ 세미나가 올해도 베를린 자유대학의 박성조 교수의 지도 아래 계속되었다. 본 세미나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통일 연구를 목표로 하여 매주 화요일 저녁 7:00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관심이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 등 통일에 관심 있는 학생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개편



통일연구소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홈페이지 하단부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좌측과 우측의 빈 공간들이 더욱 알찬 내용들로 채워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측 상단부에 통일·북한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이곳을 통하여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그밖에도 자료실이 한층 강화되어 다양한 관련 자료들이 pdf파일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각종 통일 관련 행사 소식들을 빠르게 전하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의 NGO 포럼, 새터민 포럼, 통일 정책 포럼에 관련된 소식과 자료들도 계속 업데이트가 진행중이다.

## 운영위원회 회의

1차: 2007.2.14(수) 2005년 통일학 과제제출 현황, 동북아에너지 국제학술회의, 통일학심포지움, 저널편집위, 남북통합지수, 자료실구축(직원 배정), 선임연구원 및 조교 채용, 남북학술교류 등 사업보고, 2007년도 상반기 사업계획 논의, 연구과제 기간연장 승인

2차: 2007.5.23(수), 통일포럼 및 세미나 진행, 통일학강좌 개설, 특수자료실허가, 개성공단견학 등 보고, 창립1주년 학술토론회, DMZ답사 등 사업계획 논의, 2007년도 통일학 연구지원사업 공고, 통일연구소 연구부서 설치 및 업무규정에 관한 세칙 및 내규 심의

## 연구원 동정

- 1월. 하용출 교수 국제정치학회 회장 취임
- 2월. 황상익 교수 평양 방북.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영유아 지원사업 협의
- 4월. 박명규 소장 학술교류 협의차 평양 방북,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 공대 등 학술기관 방문
- 4월. 조흥식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취임
- 5월. 장달중 교수 평양방문
- 5월. 황상익 교수 평양 방북. 어깨동무 협력사업장 (평양 의학대학 병원, 평양 어깨동무 어린이 병원,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인민병원) 방문 및 협력사업 협의
- 5월. 박정란·정은미 박사 평양 방북
- 5월. 박삼옥 교수 공저 단행본 “한국의 장수인과 장수지역: 변화와 대응” (서울대학교 출판부) 발간, 학술회의 논문 ‘Creating Innovative Cluster: Industrial restructuring in Kora in the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The 20th PRSCO meeting, Vancouver) 발표
- 연구소 인원 총원 및 변경: 정은미 선임연구원, 신승남 사서, 조한석·성상미 조교

## 연구소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현황

- 2월. Hanns Seidel Foundation 서울사무소장 Seliger 박사 "North Korean Economy and Kaesung"라는 주제로 발표
- 2월. 개성공단 견학, 총 44명 참여
- 2월. 전인영교수 특별강연, "북미관계의 지속과 변화: 6자회담을 중심으로"
- 3월. 특수자료실 허가 신청
- 3월. 통일정책포럼, 통일연구원 이봉조 원장 "2.13합의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 3월. 새터민포럼, 한영진(현 NKdaily 기자, 전 북한 국토통일부 직원) "북한의 사회계층과 의식변화"
- 4월~5월 제1기 <통일아카데미> 개설, 매주 수요일 7:00 통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
- 4월. David Straub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미국무부 한국과장) 초청 세미나
- 4월. 2007년 통일학 기초연구 2차 학술심포지움 개최
- 4월. Gerald Roland 교수(Berkeley대 경제학과) 초청 세미나
- 4월. 새터민 포럼, 독일 신동삼 선생 초청 강의. 함흥프로젝트 관련 자료구입 및 공동연구 논의
- 5월. 통일정책포럼, 하영선 교수 "2.13합의 이행 평가와 전망"
- 5월. Thai 외무부 외교관 방문: Singtong Lapisatepun (태국 외무부 동아시아과장) 외 4명, 남북관계, 북한-태국관계, 한·태관계(내년 수교 50주년) 등 논의
- 5월. 런치세미나 박성현 교수(통계학과) "통계로 본 북한"
- 5월~현재. 남북통합지수 개발 관련, 통일의식조사 및 새터민의식조사: 한국인 1,000명과 새터민 200명에 대한 통일, 통합의식 조사
- 6월. 국제학술세미나, Hanns Seidel Foundation과 공동주최, 주제: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the role of the European Union
- 6월. UN University 이사 Terusuke Terada, President of the Foreign Press Center/Japan (FPC) 방문
- 6월. 통일아카데미 DMZ(비무장지대) 답사



▲ 김일성 종합대학 방문

## 2007 과제공모 공지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에서는 통일과정 및 통일이후 제기될 제반 문제점을 진단·예측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일학 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통일학 연구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신청서는 2007. 7.13(금)까지 통일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2007. 7. 13(금)까지

나. 연구과제별 연구방식, 지원규모 및 신청자격

(1) 기획과제

- 연구방식: 공동연구(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되, 학제적 연구 장려)
- 지원규모: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본교 전임강사 이상
  - 공동연구원: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 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2) 자유과제

- 연구방식
  - 공동연구: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되, 학제적 연구 장려
  - 단독연구: 교수 1인 개인연구
- 지원규모
  - 공동연구: 과제당 4,000만원 이내
  - 단독연구: 과제당 1,5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 본교 전임강사 이상
  - 공동연구원: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소(원)의 책임연구원 또는 선임연구원으로서 전일 제로 근무하는 연구원

(3) 논문지원과제

- 연구방식: 단독연구(1인 개인연구)
- 지원규모: 과제당 5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교내외 전임강사 이상 교원 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및 선임연구원
- 지원신청은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4) 박사학위논문지원과제(연구장려금)

- 연구방식: 단독연구
- 지원규모: 과제당 600만원 이내
- 신청자격: 본교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자

※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소 홈페이지(<http://tongil.snu.ac.kr>) 참조